

# 韓國圖書館史研究(四)

朴 熙 永

- f) 元
- g) 明
- h) 日 本
- 2) 大藏經
- a) 藏經關係記錄
- b) 佛經紙

## f) 元

元은 蒙古의 後身이다. 蒙古는 成吉思汗이 西紀1206년에 即位하여서 이루어졌는데 成吉思汗의 蒙古는 東洋은 勿論 멀리 歐羅巴까지도 征服하였으니 高麗도 恒時 위협을 당하고 있다가 及其也 高宗18年(1231) 蒙古는 高麗를 侵寇하게 되었다. 元의 侵寇로 因하여 高麗의 大藏經이 없어졌으므로 高麗는 大藏經을 再雕하게 되어 所謂 八萬高麗大藏經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元과 高麗와의 圖書文化上的 交流는 侵寇以後부터 始作되어 西紀1368年 明이 建國하기 까지 繼續되었다.

高麗史節要 卷二十二 忠烈王三十年五月條에

「置國學贈學錢初贊成事安珦……博士金文鼎送江南畫先聖及七十子之像又購祭器六經諸子史……」라고 있다.

即 忠烈王30年(1304) 5月 贊成事 安珦이 國學贈學錢이라는 制度를 처음 두었는데 그돈으로 博士 金文鼎이 江南에 가서 先聖 七十子의 畫像과 또 祭器 六經 諸子

史를 사왔다고 한다.

高麗史 卷三十四 忠肅王一年六月條에

「庚寅贊成事權溥商議會議都監事李瑱三司使權漢功評理趙簡知密直安于器等會成均館考閱新購書籍且試經學初成均提舉司造博士柳衍學諭迪于江南購書籍未達而船敗衍等赤身登岸判典校寺事洪諱以太子府祭軍在南京遣衍寶鈔一百五十錠使購得經籍一萬八百卷而還」이라고 있다.

即 忠肅王1年(1314) 6月8日에 贊成事權溥, 商議會議都監事 李瑱, 三司使 權漢功, 評理 趙簡, 知密直 安于器等이 成均館에 모여서 新購書籍을 考閱하고 또한 經學을 試하였다. 처음에는 成均提舉司 博士柳衍, 學諭 迪于를 江南에 遣하여 書籍을 購入토록 하였으나 船이 敗하여 柳衍等은 赤身 登岸하였으므로 書籍이 未達하였다. 判典校寺 洪諱, 太子府祭軍으로 南京에 있어 柳衍에게 寶鈔 150錠을 보내서 經籍10,800卷을 購得케 하여 도라 왔다고 한다.

高麗史 卷三十四 忠肅王一年七月條에

「甲寅元皇太后遣使賜公主酒果帝賜王書籍四千三百七十一冊共計一萬七千卷皆宋秘閣所藏因洪諱之奏也」라고 있다.

即 忠肅王1年(1314) 7月2日 元의 皇太后가 使者를 遣하여 公主에게는 酒果를 賜하고 帝는 王에게 書籍 4,371冊 合計해서 17,000卷을 賜하였다. 이圖書는 모다 宋의 宮中文庫인 秘閣에 所藏되었던 것인

때 洪諭의 奏로 因하여 高麗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以上이 元으로 부터 高麗로 圖書가 들어온 記錄이다.

다음 高麗로 부터 元으로 圖書가 갔던 記錄은 다음과 같다.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十二年十一月條에 「丁丑命直史館吳良遇等撰國史將以進于元也」라고 있다.

即 忠烈王12年(1286) 11月14日 國史館吳良遇等에 命하여 元에 進하기 爲한 國史를 撰하게 하였나 하며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三十三年十一月條에

「丙戌以前王命直史館尹頴奉先代實錄一百八十五冊如元時人皆不可曰祖宗實錄不宜出之他國」이라고 있다.

即 忠烈王33年(1307) 11月25日 前王의 命으로 直史館 尹頴을 遣하여 先代의 實錄 185冊을 奉하여 元에 보냈는데 當時 사람들이 모다 祖宗의 實錄을 他國으로 내놓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였다 한다.

高麗史 卷三十三 忠烈王三十四年十二月條에

「戊午遣評理趙璉如元賀正以王命齎世代編年節要并金鏡錄以進」이라고 있다.

即 忠烈王34年(1308) 12月4日 賀正使 評理 趙璉을 元으로 遣하였는데 王命으로서 世代編年節要와 金鏡錄을 가지고 가서 進하였다고 한다.

高麗史 卷三十四 忠宣王三年十一月條에 「壬子 贊成事權溥等齎藏經如元」이라고 있다.

即 忠宣王3年(1311) 11月15日 贊成事 權溥等이 藏經을 가지고 元으로 갔다고 한다.

高麗史 卷三十四 忠宣王四年五月條에 「壬寅王遣大護軍致仕鄭晟送還歷代實錄」이라고 있다.

即 忠宣王4年(1312) 5月7日 王이 大護軍致仕 鄭晟을 遣하여 歷代實錄을 送還케 하였다고 있는바 이것이 忠烈王33年(1307) 11月25日 直史館 尹頴이 元으로 가지고 갔던 先代의 實錄185冊일 것이며 當時 世人이 反對하던 實錄이 도라온 것이라고 하겠다.

以上이 高麗로 부터 元으로 圖書가 갔던 記錄이다.

### g) 明

明이 建國한 것은 西紀1368年이고 高麗가 滅하고 李成桂가 建國한 것이 西紀1392年인바 高麗와 明과는 不過25年間을 交流하였던 것이다.

海東釋史 卷四十二 文藝에 보면 名山藏 王亨記에서 引用하였다고 하며

「洪武元年賜高麗王六經四書通鑑漢書」고 있다.

即 洪武元年是 明의 太祖1年이고 高麗의 恭愍王17年(1368)이 된다. 高麗王에게 六經 四書 通鑑 漢書를 賜하였다고 있는데

高麗史 卷四十二 恭愍王十九年五月條에 「成准得還自京師……又賜王六經四書通鑑漢書」라고 있다.

即 恭愍王19年(1370) 5月 成准得이 京師로 부터 還國하였는데 六經四書通鑑漢書를 王에게 賜한것을 가져왔다고 있다. 恭愍王19年(1370) 5月 成准得이 가지고 도라온 것이 洪武元年(1368)에 주었던 것을 그때 가지고 도라왔는지 또는 따로 주었는지 알수 없으며 名山藏王亨記의 年代가 誤記된 것인지 分明한 것을 알수 없

다.

高麗史 卷四十二 恭愍王十九年六月條에 「甲戌張子溫還自京師，帝賜本國朝賀儀注一冊及金龍紵絲紅熟裏綉各二匹」이라고 있다.

即 恭愍王19年(1370) 6月17日 成准得이 明으로부터 還國한 다음달에 張子溫이 明으로부터 還國하였는데 明帝가 賜한 本國朝賀儀注一冊을 가져왔다고 한다.

高麗와 明과의 사이에는 明으로부터 圖書가 드려온 記錄만이 있고 高麗로부터 明으로 간 記錄은 없다.

### h) 日本

日本은 일찍이 三國時代부터 우리의 文化를 輸入하였다. 이當時는 우리나라로부터 건너간 佛敎가 日益 盛해갔으며 佛經이 몹시 要望되였으리라고 믿는다. 日本의 資料 東寺年代記에 高麗 肅宗10年(1105) 5월에 日本은 太宰府가 高麗로 專使를 보내서 釋論通文鈔 4卷과 同贊文疏 5卷을 請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高麗史節要 卷三十三 廢王昌一年七月條에

「日本國師(高麗史에는使라고있음) 妙葩 關西省探源派了俊遣人來獻方物歸我被虜民二百五十人仍求藏經」이라고 있다.

即 廢王昌1年(1389) 7월에 日本國의 使者가 方物을 獻하고 大藏經을 求하였다고 있으며

高麗史節要 卷三十六 恭讓王四年六月條에

「庚申日本遣使求藏經仍獻方物」이라고 있다.

即 恭讓王4年(1392) 6月10日 李成桂가 登樞하기 約1個月前 日本의 使者가 와서 方物을 獻하면서 大藏經을 求하였다고 있

다.

## 2) 大藏經

趙明基敎授가 學園社에서 刊行한 大百科事典에서 高麗大藏經의 來歷과 動機를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이 大藏經은 高麗 文宗때에 大覺國師 義天이 松都 興王寺에 敎藏都監을 두고 散逸期에 있는 國內書籍은 勿論 宋, 遼等地까지 널리 疏抄를 中心으로 佛敎의 典籍을 蒐集하여 正藏에 對한 續藏의 刊行을 企圖하여 먼저 그의 目錄을 作成하였는데 이것이 新編諸宗敎藏總錄 3,000卷이다. 이 책속에 1,085部 4,857卷의 書目이 收錄되어 있는것 全部를 興王寺에서 開板하였으나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그 때에 出刊한 것은 涅槃經疏等 數十種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大藏經의 初回의 動機는 高麗 顯宗때에 契丹의 聖宗이 大軍을 거느리고 來侵하므로 高麗王은 나라를 救하고 外敵을 退治할 뜻으로 經板을 雕造하게 한 것인데 顯宗이 着手하여 德宗 靖宗을 거쳐서 文宗에 이르기까지 前後30餘年에 5,048을 完成하였다. 이木板은 嶺南 八公山 符仁寺에 備藏되어 있어서 한 때의 鎮護로서 國民의 信仰을 集中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太平聖國으로 지내던 高宗19年에 이르러 蒙古兵이 또 다시 大擧 襲來하게 됨에 이르러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經板을 먼저 焚消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再造와 移送이라고 해서

「이뒤로 國民精神의 散亂을 防止하고 必勝의 信念을 培養하기 爲하여 高宗은 江華島에 蒙塵生活를 함에도 不顧하고(大藏經도 한가지요 護願함도 한가지며 古今

이 값을 지낸 어찌 그때의 契丹兵만 물러가고 지금의 蒙古兵은 안 물러가리까) 하는 大發願을 하고 全國에 學者와 技術者 및 資材等을 募集하여 戰亂中이나 全力을 기울여 江華島에 本司를 두고 晉州, 南海에 分司를 두어 再雕한 것이니 經板 1張에는 14字 23행이 들어가 앞뒤를 1張으로 치면 1張에 644字가 되고 이것을 다시 86,686배를 하면 55,825,784字 可量이나 된다…… 前後 16年만에 冊으로 6,529冊 經板으로 86,686張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印刊의 回數를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大祖2年 1部 海印寺 古塔內에 奉納

太宗10年

世祖3年 50部 日本圓成寺의 榮弘이 갖

이고 가서 東京增王寺에 들.

燕山君6年 1部

中宗7年 1部

高宗

1911年 3部

1937年 2部 滿洲皇帝에 奉呈

以上과 같이 述하고 있는바 한편 近刊 日人 庄司淺水 가 著한 印刷文化史를

보면 大藏經에 關하여 아래와 같이 記述하고 있다.

「高麗 成宗14年(995)에 使者를 宋에 보내서 官本의 「大藏經」을 求하여 在來의 것과 對校한 後 14箇年의 歲月을 消費하여 刊行한 것이 所謂「高麗藏」의 最古板으로 1,521部 6,589卷인데…… 其後 顯宗2年(1011) 再次「大藏經」의 開版이 行하여져 文宗이 이를 繼承하여 64箇年의 長時日을 消費하여 完成하였으나 蒙古軍의 兵火를 만나서 高宗23年(1236) 三次開版이 行하여져 16箇年을 消費하여 完成하였다. 海印寺의 版木이 이때의 板木이라는 말이 가장 바른 說일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版木에 對하여 調査한 것을 보면 現在 版木은 81,240枚가 있고 板木은

縱=24cm

橫=65cm

두께=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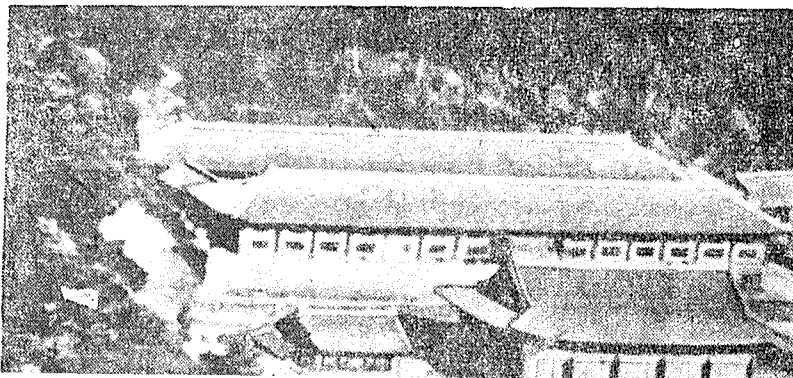
兩端=뒤지 양도목 덧붙임이 있음.

四隅=銅製의 장식이 있음.

全面=漆이 칠해져 있음.

用材=厚朴

重量=2.4kg~3.75kg



版面=天地가 22cm

橫幅=5.6cm

界線=上下에 단 있음

罫線=없음

行數=23行

1行=14字

兩面에 刻하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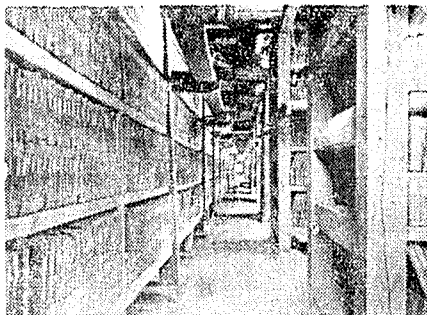
또한 刊印의 來歷 回數를 다음과 같이 調査하고 있다.

1. 太祖 2年 (1393) 1部
2. 太宗 10年 (1410) 不詳
3. 世祖 3年 (1458) 50部
4. 燕山君 6年(1500) 不詳
5. 中宗 7年 (1512) 1部
6. 高宗 2年 (1865) 2部
7. 光武 2年 (1898) 4部
8. 光武 10年 (1906) 1部
9. 大正 4年 (1915) 3部

以上과 같이 調査結果를 述하여 있으며 大正4年(1915) 複印하던 實情을 또한 아래와 같이 述하고 있다. 即 大正4年(1915) 3月15日 複印作業이 始作되었는데 50名의 人員으로 8月까지 걸려서 終了했다고 한다. 複印하는데도 이와같이 힘든것으로 미루어 雕板作業은 더욱 어려운 것이며 더욱이 高麗時代와 大正時代는 모든 社會的인 條件도 極히 다른 것이다.

以上の 두를 以外에 高麗大藏經에 關한 研究가 많이 있으나 두個만을 여기에 轉載하여 이를 比較하여 본다면 여러 點에서 差가 있는것을 알수 있다. 雕刻의 回數, 複印의 回數, 板木의 枚數等인데 이에 對한 研究는 後日로 미루겠다.

高麗大藏經의 板木은 現在 海印寺에 있는 二棟의 藏經閣속에 施設된 架에 收藏되어 있다. 藏經閣은 建坪이 合하여 314



坪4合8勺이 된다.

### a) 藏經關係記錄

高麗의 全時代를 通한 經書 또는 大藏經에 關한 記錄을 主로 高麗史에서 찾아 年代順으로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太祖11年(928) 11月8日

「新羅時代에 入唐하였던 僧 洪慶이 唐의 閩府로 부터 水路로 大藏經一部를 가지고 禮成江에 이르렀음에 王이 親이 이를 마저 帝釋院에 두게 하였다」

※高麗史 卷一 太祖十一年八月

成宗10年(991) 4月21日

「韓彥恭이 宋으로 부터 돌아왔다. 宋帝太宗이 賜한 大藏經 481函 凡2,500卷을 마친다. 王 이를 맞아 內殿에 넣다」

※高麗史 卷三 成宗十年四月庚寅

※高麗史 卷九三 列傳六 韓彥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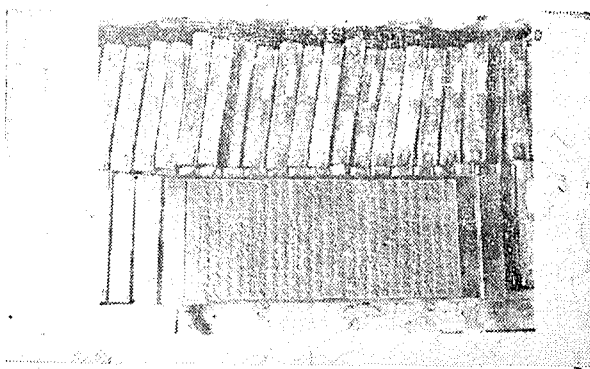
成宗10年(991) 10月

「翰林學士 白思柔를 宋에 遣하여 藏經과 御製를 賜하였음을 謝하다」

※高麗史 卷三 成宗十年十月

顯宗12年(1021) 8月16日

「王 또한 宋에 請하여 金字大藏經을 이에 納하고 더하기를 佛經을 彫造하여 寺中에 두게 하였다. 般若經寶가 即이



慶하다」

※高麗史 卷十 宣宗

四年三月巳未

宣宗4年(1087) 3月22日

「宋商徐哉等二十二人  
이 와서 新註華嚴經板  
을 獻하다」

※高麗史 卷十 宣宗

四年三月甲戌

宣宗4年(1087) 4月19日

「歸法寺에 行次하여 大

것이 다」

※玄化寺碑文

文宗17年(1063) 3月4日

「契丹이 大藏經을 보내왔는데 王이 法  
駕를 가우고 西郊에서 이를 마지 하였  
다」

※高麗史 卷八 文宗十七年三月丙午

文宗37年(1083) 3月14日

「太子에 命하여 宋朝의 大藏經을 마저  
서 開國寺에 두게 하고 道場을 設하게  
하다」

※高麗史 卷九 文宗三十七年三月巳丑

宣宗3年(1086) 6月

「王弟 釋煦 宋으로부터 돌아와서 釋典  
及經書 1,000卷을 마지다. 또 奏하여  
興王寺에 教藏都監을 두다. 遼, 宋, 日  
本으로부터 購書하였다. 4,000卷이 넘  
었는데 모다 刊行하였다」

※高麗史節要 卷六 宣宗三年六月

宣宗4年(1087) 2月11日

「開國寺에 行次하여 大藏經의 完成을  
慶하다」

※高麗史 卷十 宣宗四年二月甲午

宣宗4年(1087) 3月7日

「興王寺에 行次하여 大藏經의 完成을

藏經의 完成을 慶하다」

※高麗史 卷十 宣宗四年四月庚子

宣宗7年(1090) 8月8日

「釋煦 諸宗教藏總錄을 編하여 이룩하  
다. 收錄된 經疏 4,769卷임」

※大覺國師六集 卷一序

※新編諸宗教藏總錄

睿宗2年(1107) 1月3日

「遜가 高存壽를 보내 王의 生辰을 賀하  
였으므로 高麗는 大藏經을 賜하였다」

※高麗史 卷十二 睿宗二年正月庚寅

明宗11年(1181) 1月4日

「寫經院이 불타다.

이것보다 前에 銀字藏經을 寫成케 하였  
다. 公私가 競争하여 錢財를 내서 이를  
도왔다. 無賴輩가 있어 이것을 탐 내어  
이로 因하여 불이 났다」

※高麗史 卷二十 明宗十一年一月辛亥

高宗23年(1236)

「都監을 置하고 大藏經板의 再雕를 始  
作하다」

※高麗史 卷二十四 高宗三十八年九

月壬午

高宗38年(1251) 9月25日

「城西門外의 大藏經板堂에 幸次하였다.

百官을 거느리고 行香하였다.

顯宗時의 板本은 壬辰蒙古의 兵禍에 燬되다.

王이 前에 群臣과 더불어 다시 都監을 願立하여 十六年만에 이에 이르러 雕板功畢하다」

※ 高麗史 卷 二十四高宗三十八條年九月壬午

元宗 5年(1264) 7月27日

「仁王般若經新舊譯各一百二部印成하다」

※ 高麗史 卷二十六 元宗五年七月己亥

忠烈王 7年(1281) 3月

「承旨廉承益 그집의 一區를 가지고 金字大藏經所로 賃것을 請하였는데 이를 許하다」

※ 高麗史節要 卷二十 忠烈王七年三月

忠烈王 9年(1283) 9月9日

「王 公主와 함께 僧을 金字大藏院에서 飯하다」

※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 9年9月己未 忠烈王 15年(1289) 閏10月9日

「金字大藏經 이룩하다.

王·公主와 함께 金字院에 幸次하여 이를 觀하다」

※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 15年閏10月乙酉

忠烈王16年(1290) 3月17日

「元帝 金字經을 寫함으로 善書의 僧三十五人을 徵하여 元에 遣하다」

※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十六年三月庚申

忠烈王16年(1290) 4月25日

「寫經僧65人을 元에 遣하다」

※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十六年四月

丁酉

忠烈王16年(1290) 8月3日

「將軍 趙珣을 遣하여 寫經僧을 引率元 에 가게하다」

※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十六年八月癸酉

忠烈王16年(1290) 9月13日

「元 使를 遣하여 藏經을 修補하다」

※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十六年九月癸丑

忠烈王21年(1295) 3月27日

「親히 藏經을 康安殿으로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一 忠烈王二十一年三月辛未

忠烈王23年(1297) 8月3日

「元 使를 遣하여 寫經僧을 徵하다」

※ 高麗史 卷三十一 忠烈王二十三年八月癸巳

忠烈王24年(1298) 7月21日

「三大藏所에 幸次하여 命하여 五大部經을 寫하게하다」

※ 高麗史 卷三十三 忠宣王即位年七月乙巳

忠烈王26年(1300) 12月23日

「元 伯顏忽篤不花를 遣하여 藏經을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一 忠烈王二十六年十二月甲午

同 12月28日

「王 元의 使臣 伯顏忽篤不花와 함께 妙蓮寺에 幸次하여 藏經을 轉하다」

※ 同 十二月28日己亥

同 12月29日

「慈雲寺에 幸次하여 藏經을 轉하다」

※ 同 12月庚子

忠烈王27年(1301) 1月3日

「元 王의 使臣과 함께 興王寺에 幸次하여 藏經을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二十七年  
一月甲辰

忠烈王28年(1302) 4月

「元 別帖木兒等を 遣하여 寫經僧을 徵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二十八年  
四月辛未

忠烈王29年(1303) 2月29日

「元 怯里馬赤 月兒忽都를 遣하여 藏經을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二十九年  
二月丁亥

忠月王29年(1303) 3月6日

「百官儀를 備하고 御香을 奉하여 藏經을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二十九年  
三月甲午

忠烈王31年(1305) 4月8日

「元 突烈을 遣하여 來國 藏經을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三十一年  
四月癸未

忠烈王31年(1305) 5月1日

「廣明寺에 幸次하여 藏經을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三十一年  
五月丙午

忠烈王31年(1305) 5月12日

「興王寺에 幸次하여 藏經을 轉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三十一年  
五月丁巳

忠烈王31年(1305) 12月18日

「元 忽都不花를 遣하여 와서 字經僧을 求하다 僧 100을 選하여 遣하다」

※ 高麗史 卷三十二 忠烈王三十一年

十二月庚寅

忠宣王二年(1310) 6月6日

「元 宦者方臣祐을 遣하여 와서 金字藏經을 監書하다」

※ 高麗史 卷三十三 忠宣王二年六月  
壬子

忠宣王2年(1310) 7月19日

「方臣祐 藏經을 神孝寺에 轉하다」

※ 高麗史 卷一百二十二 列傳三十五  
宦者 方臣祐

忠宣王3年(1311) 8月25日

「元의 皇太后 鎖魯花를 遣하여 와서 寫經을 賞하여 鈔五千八百錠을 賜하다」

※ 高麗史 卷三十四 忠宣王三年八月  
癸巳

忠宣王3年(1311) 11月15日

「贊成事 權溥等 藏經을 齎하여 元에 가다」

※ 高麗史 卷三十四 忠宣王三年十一月  
壬子

忠宣王4年(1311) 8月11日

「命哈기를 旻天寺에 金字藏經을 寫하게 하다」

※ 高麗史 卷三十四 忠宣王四年八月甲  
戌

忠肅王1年(1314) 1月5日

「王이 僧 萬恒을 銀字院으로 訪問하다」

※ 高麗史 卷三十四 忠肅王元年正月  
庚寅

忠惠王1年(1340) 3月13日

「元 宦者 普賢을 遣하여 와서 佛經을 求하다」

※ 高麗史 卷三十六 忠惠王後元年三  
月 丙寅

廢王昌1年(1389) 7月

「日本의 使者 方物을 獻하여 藏經을 求



하다」

※ 高麗史 卷一百三十七 廢王昌一年  
七月

恭讓王 4年(1392) 6月10日

「日本 使를 遣하여 方物을 獻하고 藏經을 求하다」

※ 高麗史節要 卷三十六 恭讓王四年  
六年庚申

以上이 主로 高麗史에 있는 大藏經關係의 記錄인바 高麗時代의 藏經出版은 釋煦로 始作되어 매우 活潑하였던 것으로서 高麗를 中心으로 해서 隣接하고 있던 여러 나라로부터 이를 求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元은 數次에 걸쳐 寫經僧을 徵하여 간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高麗는 宣宗 3年(1086) 6월에 教藏都監을 두고 藏經出版事業을 始作하였으며 한편 金字經을 作成하기 爲하여 忠烈王 7年(1281) 3月 金字大藏經所가 設立되었고 忠宣王 4年(1312)에는 銀字經을 作成하기 爲하여 銀字院이 設立되었다.

### b) 佛經紙

藏經의 出版事業이 甚히 活潑하였던 것은 前述한것으로 알 수 있는터이지만 이

와 隨作하여 製紙業도 大端히 發達되었던 것이다. 高麗에서 製紙되는 紙類가 여러種있었던 것이나 그중에서도 特히 佛經을 印刷하기 爲한 佛經紙(藏經紙)는 特別하게 製紙된 特殊紙일 것이다. 當時 國敎인 佛敎를 信仰하는데 必한 佛經을 刊印하는 佛經紙는 元으로 부터도 數次來해 貰던 것이다.

高麗史 卷三十三 忠宣王元年四月條에 「辛巳元遣使求佛經紙」

라고 있다. 即 忠宣王 1年(1309) 4月29日 元은 使者를 보내와서 佛經紙를 求하였다고하며

高麗史 卷三十四 忠肅王八年五月條에

「甲午前益城君洪淪奉勅來求藏經紙」

라고 있다. 即 忠肅王8年(1321) 5月21日 前 益城君洪淪 元帝의 勅을 奉하여 와서 藏經紙를 求하였다고 한다.

高麗史 卷三十五 忠肅王七年七月條에 「丙辰元遣使來求佛經紙」

라고 있다. 即 忠肅王(後位) 7年(1338) 7月23日 元이 使者를 보내 와서 佛經紙를 求하였다.

## <再 版>

朴 奉 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K. C. R. 實費 400圓)

朝鮮十進分類法 (K. C. R. 實費 800圓)

이번 梨花大學校 圖書館學硏究會에서 K. C. R. K. DC 改訂版을 프린트版으로 發行하였으나 所要部數를 請求하시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郵票可)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大峴洞 1

梨花大學校 圖書館學硏究會 發行